

Quant

문종진

02.3771.9144

20190003@iprovest.com



ETF Replay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 신재생, 전기차, 헬스케어



ETFReplay: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 신재생, 전기차, 헬스케어

- COVID-19 대처 미흡, 경기 침체 등으로 과거대비 트럼프 재선 실패 가능성 상승
- 재선 전 2년 이내 경기침체 발생 시 재선 실패 확률 ↑, 영향 미치는 주요 경제 변수 실업률, 주가, 실질소득 등
- 바이든 당선 시, 바이든과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헬스케어 관련 ETF 수혜 예상

트럼프 재선 실패 가능성 상승

11월 3일 실시 예정인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COVID-19 대응 실패,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트럼프의 재선 실패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는데, COVID-19 발생 이전 60% 수준까지 상승했던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 확률은 현재 50% 밑으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4월 말~5월 초 여론조사 결과에서 1차례를 제외하고 전부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거두었으며, 대통령 선거인단 확보 예측치는 민주당 232명, 공화당 204명, 경합지역 102명으로 민주당이 소폭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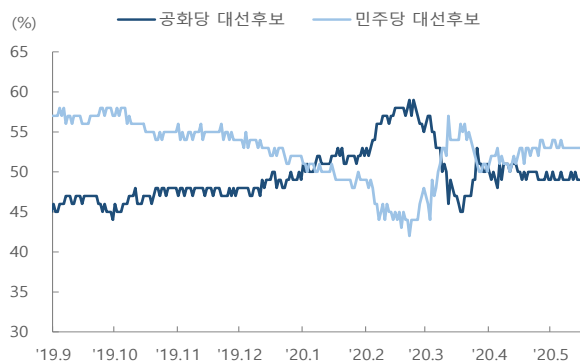
재선 성공과 상관관계 높은 경제변수 실업률, 주가, 소득 등에 주목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경합지역 (Swing State)에서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 이후 경기 침체를 겪고 재선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재선 성공과 상관관계가 높은 경제변수들은 실업률, 주가, 가구당 실질소득, 주택 가격, 가솔린 가격 등으로, 이후 해당 경제 변수들의 추이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1)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는 점, 2) 2016년 대선 당시 열세를 보이던 지지율 격차를 뒤집고 당선되었다는 점, 3) 대선 기간이 6개월 남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상황이 바뀔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바이든 당선 시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헬스케어 수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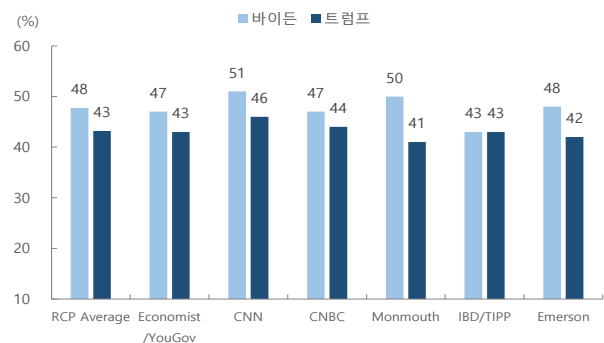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시 수혜를 입을 업종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헬스케어 분야 등이다. 이들 업종 모두 바이든 후보의 주요 정책과 연관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정책의 경우 민주당의 핵심 정책과 연결되며(그린 뉴딜), 부임 첫해부터 해당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발표한 상황이다. 헬스케어 부문 정책의 경우 1) 바이든 후보가 강력한 약가 인하보다 약가 상승 제한 정책을 선호하고, 2) 보험사의 의약품 커버리지 확대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보험사 및 제약/바이오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도표 1] 정치 베팅사이트에 반영된 정당별 대통령 후보 당선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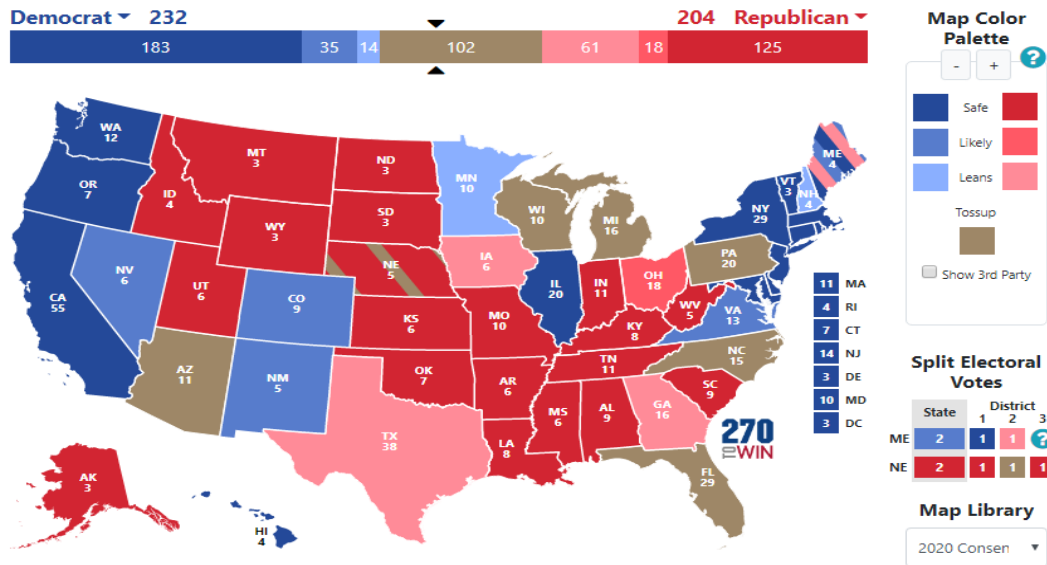
자료: Predictit,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4월 말~5월 초 바이든 vs 트럼프 여론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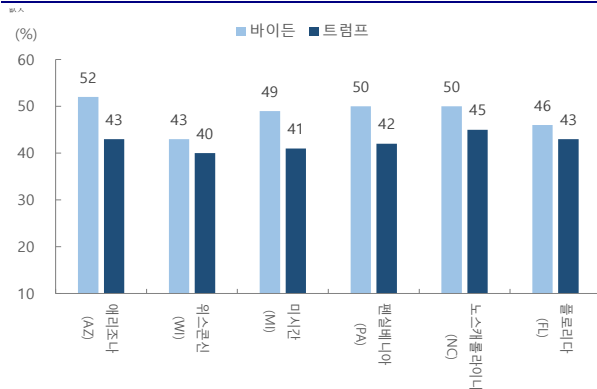
자료: RealClearPolitic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2020 년 대통령 선거 컨센서스 맵: 민주당 232 명 vs 공화당 204 명. 경합 지역(Swing State) 102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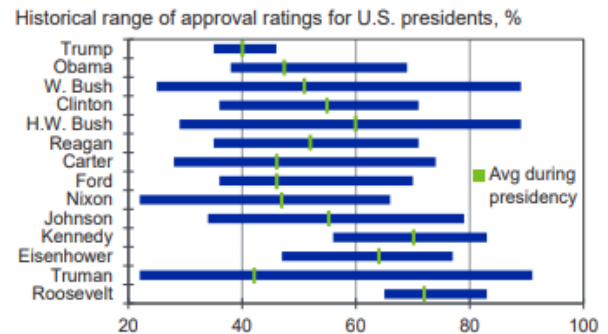
자료: 270towin.com,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4 월 말 경합지역(Swing State) 지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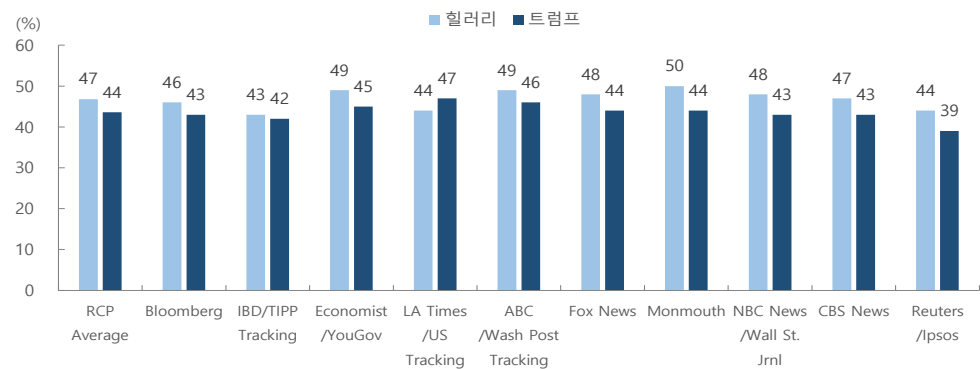
자료: 언론종합,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미국 대통령별 지지율 범위 및 평균값



자료: Moody's Analytic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2016 년 대통령 선거 전 힐러리 vs 트럼프 여론조사 결과(11 월 첫째 주)



자료: RealClearPolitic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대선과 상관관계 높은
경제 지표 부진한 흐름
(실업률, 주가, 소득)

Moody's Analytics는 정책 변수(지지율 등)와 대선과 상관관계가 높은 경제 변수(실업률, 주가 등)를 이용한 미국 대선 예측 모델(U.S Presidential Election Model)을 만들었다. 이 모델을 통해 2020년 재선 결과를 예측한 결과, COVID-19 확산 이후 트럼프의 재선 성공 확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당 모델에서 사용되는 주요 경제 지표인 실업률과 주가지수, 가구당 실질소득 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지표 이외에 1)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솔린 가격 하락세, 2) COVID-19 이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률은 재선에 긍정적인 요소지만, 경기침체로 이 이외의 지표들이 단기간 내에 회복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재선 전 경기침체 발생
시, 재선 실패 확률 ↑

1950년 이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부시(父), 카터, 포드 대통령 3명이다. 해당 대통령들 모두 재선 시행 전 2년 이내에 급격한 경기 하락과 실업률 상승을 겪었다. 아직까지 경기침체 발생 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을 키우는 요소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1) 경기부양책과 조속한 경제 재개, 2) COVID-19 사태 중국책임론 3) 빠른 백신 개발을 통해 현 국면에 대응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들로 경기가 대선 레이스 전(3분기 전후)까지 회복되는지 여부가 재선 성공/실패를 가를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7] COVID-19 이후 미국 대선 예측 모델(U.S Presidential Election Model)에 사용되는 경제변수의 변화

경제 변수	COVID-19 이전(2019년 말)	COVID-19 이후 최신 데이터
실업률(2-qr ppt change)	-0.27	+3.93
S&P500(1-yr % change)	+28.88	-0.51
가솔린 가격(1-yr % change)	+9.36	-28.34
주택가격(2-yr % change)	+7.00	+6.41
가구당 실질소득(2-yr % change)	+5.02	+2.41

자료: Moody's Analytics,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1950년 이후 재선과 경기침체 간 상관관계: 재선 시행 전 2년 이내 경기침체 발생 시 재선 실패 확률 ↑

재선 전 2년 이내 경기 침체 발생 안했을 시					
년도	대통령	재선 당해 실업률 변화	침체 여부	재선 당선	1위, 2위 후보간 지지율 차이
2012	오바마	-1.6%	X	○	+3.9%
2004	부시(子)	-0.2%	X	○	+2.5%
1996	클린턴	-0.6%	X	○	+8.5%
1984	레이건	-3.0%	X	○	+18.2%
1972	닉슨	0.1%	X	○	+23.2%
1964	존슨	-0.3%	X	○	+22.6%
1956	아이젠하워	-1.8%	X	○	+15.4%
재선 전 2년 이내 경기 침체 발생했을 시					
년도	대통령	재선 당해 실업률 변화	침체 여부	재선 당선	1위, 2위 후보간 지지율 차이
1992	부시(父)	+1.40%	○	X	-5.6%
1980	카터	+1.70%	○	X	-9.7%
1976	포드	+1.70%	○	X	-2.1%

자료: ClearBridge Investment,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바이든 당선 시 정책 수혜 예상되는 신재생, 전기차, 헬스케어 부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주요 정책을 비교해보면, 기후/에너지 부문과 헬스케어 부문에서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바이든 당선 시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야이다.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1) 신재생 에너지개발 4,000억 달러 투자, 2)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미국 전역에 500,000개 공공충전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헬스케어 부문 정책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1)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보다 약가 상승 제한 정책을 선호하고, 2) 보험사의 의약품 커버리지 확대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보험사 및 제약/바이오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관련 테마 ETF인 PBW, LIT, XLV 소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헬스케어 관련 테마 ETF인 PBW(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LIT(Global X Lithium & Battery Tech ETF), XLV(SPDR Healthcare Select Sector Fund)를 소개한다. PBW는 ICLN, QCLN 등 보다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신재생에너지 ETF 중 미국 기업의 비중이 80%로 가장 높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LIT와 XLV의 경우 관련 테마 ETF 중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가 활발한 종목으로 선정하였다. LIT의 경우 전기차와 2차전지 밸류체인에 고르게 투자하는 ETF이며, XLV는 미국 제약, 바이오, 의료서비스, 의료장비 등 미국 헬스케어 대형주에 분산투자하는 ETF이다.

[도표 9] 트럼프 vs 바이든 주요 정책 비교

구분	트럼프	바이든
세제혜택	법인세 인하, 소득세 축소	법인세율 인상
헬스케어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 폐지	오바마케어 개선 메디케어/공공건강보험의 옵션 제공 중산층의 보험 관련 세금 축소
무역	보호무역주의, TPP 탈퇴	TPP 재개 추진
이민	반이민정책/강경이민정책	친이민정책/불법체류자 시민권 획득 장려
기후/에너지	파리 기후협약 탈퇴/환경규제 완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실현 청정 에너지 개발에 향후 10년 동안 4,000억 달러 투자 계획 온실 가스 감축 위한 인프라 구축
인프라투자	2016년 대선 당시 인프라 투자정책 제안했으나 미실행 COVID-19 이후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시행 주장	고속도로, 다리 등 인프라 구축에 부임 첫 해 500억 달러 투자 전체 1.3조 달러를 인프라 구축에 사용 태풍, 산불, 해수면 상승 대비 도시 건설/재해 복구 인프라 구축 시골 지역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200억 달러 규모)
전기차/배터리	-	배터리, 에너지 저장기술 관련 정책 구축 계획 500,000개 공공충전 시스템 구축

자료: 각 후보 홈페이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PBW US

May 20, 2020

미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ETF

Key Data(5/20)

가격(\$)	30.8
AUM(Mn\$)	256.3
설정일	2005-03-03
비용(%)	0.70
20일 평균 거래량(주)	102,480.8
기관 비중(%)	29.6
12M 배당수익률(%)	2.0
구성 종목 수(Long)	41
Top 10 보유비중(%)	31.0
Trailing P/E(배)	-
Trailing P/B(배)	2.2
1주 수익률(%)	-7.1
1개월 수익률(%)	3.8
3개월 수익률(%)	-26.0
6개월 수익률(%)	0.0
YTD 수익률(%)	-10.1
설정 이후 연율화 수익률(%)	13.5

Price & Outstanding Shares



미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ETF

PBW의 추종지수는 WilderHill Clean Energy Index로 미국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편입하는 ETF이다. 해당 ETF는 풍력, 태양열, 바이오연료, 지열 등 신재생 발전 관련 업체들과 전기차, 연료전지 제조 업체들이 고르게 편입되어 있다. 지수 구성 시 등급별 차등편입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 종목의 편입 비중이 4.0%를 넘어가지 않도록 리밸런싱한다. 때문에 특정종목에 비중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AUM은 250 Mn \$ 수준으로 규모 측면에서는 중소형 종목이나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발전 초기인 만큼 다른 ETF 또한 대체로 규모가 작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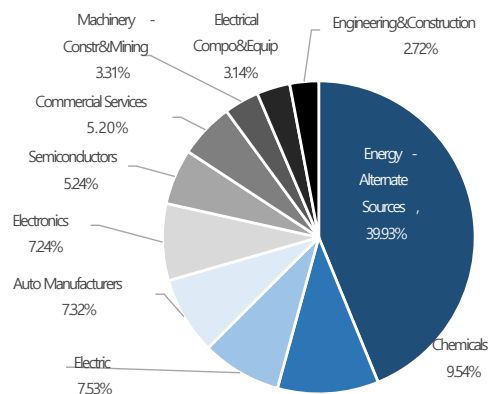
비용 0.70%로 높은 편. 배당수익률 2.0%

PBW의 비용은 0.70%로 글로벌 테마 ETF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배당수익률은 2.0%이다. 국가별 비중을 살펴봤을 때, 미국이 80.12%로 가장 높으며 중국 6.86%, 캐나다 5.03%, 이스라엘 2.95% 순이다. 섹터별 비중은 대체(신재생) 에너지 부문 39.93%, 화학 9.54%, 전기 7.53%, 전기차 제조업체 7.32% 순이다.

Top 10 Hol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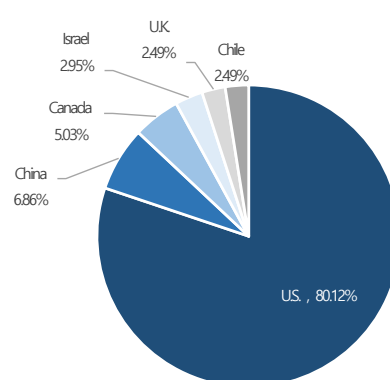
종목	비중(%)	종목	비중(%)
Enphase Energy Inc	4.0	Ameresco Inc	2.8
Tesla Inc	3.7	Vivint Solar Inc	2.8
Bloom Energy Corp	3.3	Veeco Instruments Inc	2.8
NIO Inc	3.1	Sunnova Energy Internat	2.8
SolarEdge Technologies I	2.9	TPI Composites Inc	2.8

[도표 10] PBW 섹터별 비중 Top10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PBW 국가별 비중 Top10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X Lithium & Battery Tech ETF

LI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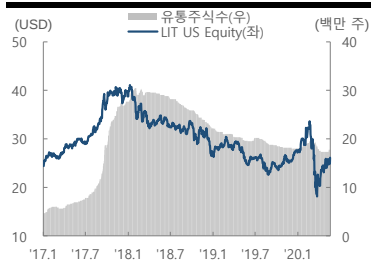
May 20, 2020

리튬, 2차전지, 전기차 제조 등 관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

Key Data(5/20)

가격(\$)	24.9
AUM(Mn\$)	444.3
설정일	2010-07-23
비용(%)	0.75
20일 평균 거래량(주)	207,678.1
기관 비중(%)	13.8
12M 배당수익률(%)	2.0
구성 종목 수(Long)	41
Top 10 보유비중(%)	79.2
Trailing P/E(배)	106.1
Trailing P/B(배)	1.7
1주 수익률(%)	-3.4
1개월 수익률(%)	1.6
3개월 수익률(%)	-22.3
6개월 수익률(%)	-2.9
YTD 수익률(%)	-8.9
설정 이후 연율화 수익률(%)	-1.0

Price & Outstanding Shares



리튬 및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

LIT의 추종지수는 Solactive Global Lithium Index로 41개의 글로벌 리튬/전기차 밸류체인 전체에 투자하는 ETF이다. 밸류체인 내에 있는 리튬 공급업체, 2차 전지 생산업체, 전기차 제조업체들을 모두 편입하고 있다. 지수 구성방식은 시가 총액 가중방식을 사용한다. 2019년도 중반까지 리튬 공급과잉 이슈와 중국 지역 전기차 판매 감소로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이 하락하며 단기적으로 주가가 부진했었다. 리튬/배터리/전기차는 정책 모멘텀의 영향을 크게 받는 테마인데 바이든 당선 시 전기차 공공충전 시스템 구축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관련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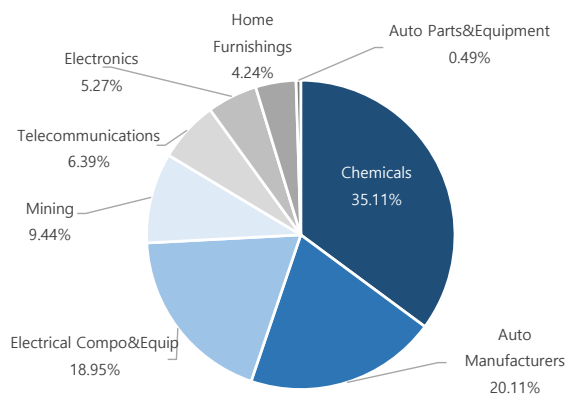
비용 0.75%로 다소 높은 편. 배당 수익률 2.0%

LIT의 비용이 0.75%로 다소 높은 편이다. 배당수익률은 2.0%로 반기 배당을 실시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39.9%로 가장 높으며, 한국 13.63%, 칠레 12.33%, 일본 9.03% 순이다. 섹터별 비중은 화학 35.11%, 전기차 제조업체 20.11%, 자동차 부품 장비 업체 18.95%, 리튬 채굴업체 9.44% 순이다. 주요

Top 10 Hol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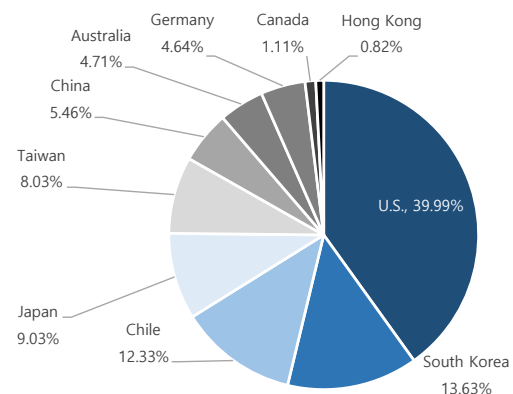
종목	비중(%)	종목	비중(%)
Albemarle Corp	17.6	Simplo Technology Co Ltd	5.3
Tesla Inc	14.5	LG Chem Ltd	5.2
Sociedad Quimica y Mine	12.3	Panasonic Corp	4.2
Samsung SDI Co Ltd	6.4	GS Yuasa Corp	4.2
BYD Co Ltd	5.5	Varta AG	4.0

[도표 12] LIT 섹터별 비중 Top10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LIT 국가별 비중 Top10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SPDR Healthcare Select Sector Fund

XLV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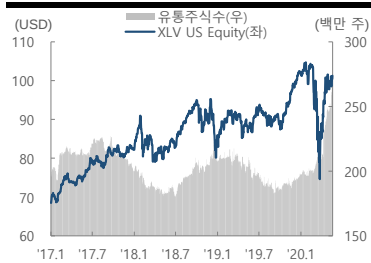
May 20, 2020

미국 대표 헬스케어 ETF

Key Data(5/20)

가격(\$)	101.3
AUM(Mn\$)	26,801.7
설정일	1998-12-22
비용(%)	0.13
20일 평균 거래량(주)	11,565,887.0
기관 비중(%)	61.3
12M 배당수익률(%)	2.2
구성 종목 수(Long)	61
Top 10 보유비중(%)	52.3
Trailing P/E(배)	24.1
Trailing P/B(배)	4.6
1주 수익률(%)	0.1
1개월 수익률(%)	0.5
3개월 수익률(%)	-2.7
6개월 수익률(%)	4.2
YTD 수익률(%)	-0.6
설정 이후 연율화 수익률(%)	17.2

Price & Outstanding Shares



S&P 지수 내에 편입된 대형주 위주로 편입. 미국 대표 헬스케어 ETF

XLV의 추종지수는 S&P Health Care Select Sector Index로 S&P500 지수 내 헬스케어 종목 61개를 편입하고 있다. 지수 구성 방식은 시가총액 가중방식을 사용하며 분기별 리밸런싱을 실시한다. 경쟁 ETF 중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AUM이 가장 크고 거래량도 가장 높다. 이미 안정적인 사업모델과 시장 지위를 확보한 대형주 위주로 편입되어 있으며, 제약, 바이오, 의료서비스, 의료장비 등 헬스케어 업종 전반에 분산 투자되어 있다. 해당 ETF는 헬스케어 부문에 장기투자하거나, 섹터 로테이션(Sector Rotation) 전략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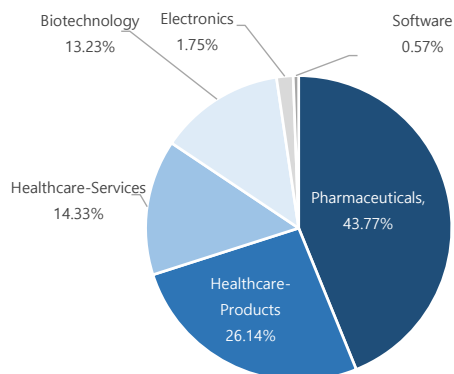
비용 0.13%. 배당 수익률도 2.2%로 높은 편

XLV의 비용은 0.13%로 저렴하며, 경쟁 상품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배당 수익률은 2.2%이며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96.6%이며, 섹터별 비중은 제약 43.77%, 헬스케어 제품 26.14%, 헬스케어 서비스 14.33%, 바이오 13.23% 순이다. 포함된 대표 종목은 존슨 앤 존슨 10.5%, 유니티드 헬스 7.4%, 파이프 5.6% 등이다.

Top 10 Hol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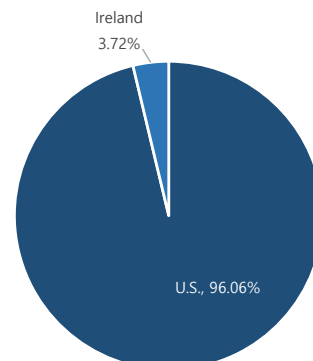
종목	비중(%)	종목	비중(%)
Johnson & Johnson	10.5	Abbott Laboratories	4.2
UnitedHealth Group Inc	7.4	Bristol-Myers Squibb Co	4.0
Pfizer Inc	5.6	Thermo Fisher Scientific	3.7
Merck & Co Inc	5.4	Amgen Inc	3.7
AbbVie Inc	4.3	Eli Lilly and Co	3.5

[도표 14] XLV 섹터별 비중 Top10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XLV 국가별 비중 Top10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_2020.03.31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1.3	8.7	0.0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 (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